

나노라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나라서

야규가도

일본의 역사를 걷다

청주

청주의 발상

벚꽃과 촬영

나라의 숨은 명소

나라·다도

일기일회(一期一会)

제 10호

일본의 역사를 거니는 야규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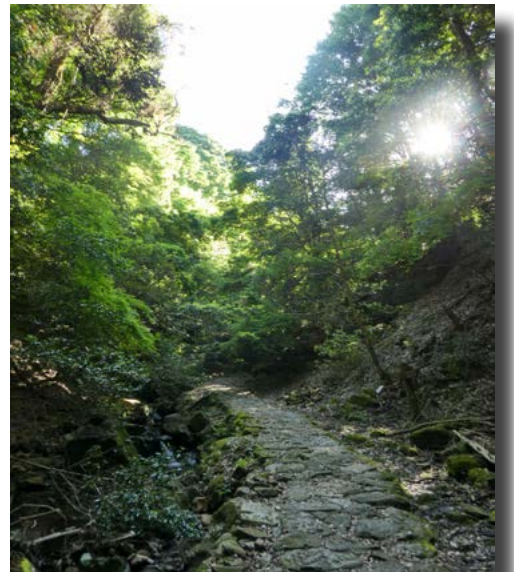
가스가산 원시림 안을 지나 에도시대의 대장간으로 유명했던 야규거리를 걸으며, 나라현과 교토부 경계의 가사기까지 이어지는 야규가도는 그야말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 하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산에서 엔조지 절까지

약 32km를 하이킹 할 예정이어서 해가 뜨기 시작하고 새들이 지저귀 무렵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엔조지 절까지의 하이킹은 가스가산 원시림 안을 지나 강을 따라 있는 돌계단으로 완만한 경사면을 걸어가게 됩니다. 삼나무 숲속을 거닐며 나무 사이로 빛줄기가 길을 비추는 풍경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은 세계에 들어와 있는 기분마저 듭니다. 예로부터 가스가타이샤 신사의 순례지였던 야규가도에서는 야생동물과 조용한 숲속에서 오랜 역사를 느끼게 하는 지장보살을 볼 수 있습니다.

도중의 굽이진 길에 있는 지옥계곡을 통과합니다. 아주 깊지는 않은 계곡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건 어떨까요. 하이킹의 제1구간은 나라시의 산속에 있는 엔조지 절에서 끝납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정원의 다보탑이 보이는 온화한 분위기의 절입니다.



엔조지 절에서 야규까지

엔조지 절부터의 길은 다시 숲과 산길이 시작되고 야마구치 신사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햇볕이 잘 드는 길과 논밭을 따라 걷습니다. 길은 마을보다 높은 곳에 있어 전망이 좋은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야규의 전통적인 집, 푸른 기와로 만들어진 지붕이 논밭의 초록 속에서 아름답게 비칩니다. 한적한 마을, 계단식 논, 작은 절과 신사, 평온한 환경이 이곳에 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는 예로부터 변함없는 일본의 농촌마을을 볼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만, 이곳에서는 일본의 원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넘은 곳에서 길은 끝납니다. 고개는 특별히 높지는 않지만, 꽤 험난합니다. 험난한 길은 곧 끝나고 내려가는 길은 민가와 야규버스정류장으로 이어집니다.



야규버스정류장에서 가사기역까지
 야규버스정류장에서 강변으로 길이 이어지고 다시 산으로 들어갑니다.
 가사기데라 절까지 도달하면 그곳에서 하이킹의 종착점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나무 사이로 마을과 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하이킹에서 가장 걷기 쉬운 구간이 아닐까요. 가사기역 부근에는 기즈가와 강이 흐릅니다. 하이킹 후 강변에서 낮잠을 자는 것도 기분이 좋아질 듯 합니다.
 다만, 가사기역에 정차하는 전철은 운행 수가 적기 때문에 사전에 운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2km를 하이킹 한다고 하면 너무나 힘들 것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르내리는 길 전체가 험난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초심자도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약 6~7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걷는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나라시 관광안내소에 야규가도를 소개하는 전단지(leaflet)가 있습니다. 주요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하이킹 할 때 가져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청주의 발상지 나라에서 술을 즐기자!

일본 청주의 기원은 나라시 동남부에 있는 쇼라쿠지(正曆寺)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라의 술 제조는 고사기와 일본서기, 만엽의 오랜 옛날부터 시작하여 나라시대에는 헤이조쿄와 도다이지 절, 고후쿠지 절, 가스가타이사 신사 등 신과 부처에게 바치는 어신주(御神酒)로서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나라시내에서 청주를 즐길 수 있는 양조장 중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기주조 주식회사」

야기주조 주식회사는 나라공원의 남동부인 가스가산 원시림 산기슭에 자리한 명수지 '시미즈쇼'에서 에도시대 이전에 창업한 양조장 '요코타야(横田屋)'를 1877년에 계승하였습니다. 야기주조의 술은 나라의 명주(銘酒)로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야기주조 주식회사 대표 야기 다케키 님 인터뷰

·청주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술 제조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때는 무로마치 시대로, 절이 권력을 갖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고후쿠지 절의 '타몬인 일기(多聞院日記)'에 술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고후쿠지 절의 한 계열인 쇼라쿠지 절(正曆寺) 에도 술 제조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의 일본어-포르투갈어 사전에도 나라의 청주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쇼라쿠지 절에서 처음으로 '청주(스미자케)'를 만들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쇼라쿠지 절에는 '일본 청주의 발상지(日本清酒発祥之地)'라고 쓴 비석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탁한 술(濁酒)이 많았지만, 윗부분의 맑은 술만 떠서 마시게 된 것이 나라 청주의 시작입니다.



·개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 양조장은 에도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양조장 앞 길을 '기요미즈도리(清水通り)'라고 하는데, 이름대로 가스가산의 맑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메이지시대 초에 양조장을 운영하던 분이 몇년간 술 제조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시 오사카 도지마에서 쌀장사를 하시던 저의 증조부께서 양조장을 인수해서 야기주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상품을 소개 해주세요.

청주 '쇼헤이(升平)'가 대표상품입니다. 다도(茶道) 선생님께서 중국 시의 한 구절인 '오곡풍양천하승평(五穀豊穰天下升平)'에서 유래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견학시에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계절에 따라 만드는 술의 종류가 다릅니다. 6월에 들어가면 매실주를 만드는 밑작업을 시작합니다. 6월~9월 경에는 미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견학 코스는 견학용으로 따로 만든 공장이 아니라 실제로 술을 제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방문 시기나 타이밍이 맞으면 실제로 술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청주를 알리기 위해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주의 발상지가 나라라는 것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나라는 사슴과 도다이지 절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으나,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술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양조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쇼헤이(升平)'라고 적힌 간판에 눈이 갑니다. 간판은 무려 70년 전에 오사카의 도매상이 써준 것이라고 합니다. 품위 있는 동시에 힘을 느낄 수 있는 서체입니다.

1965년경까지 술 제조에 우물물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지하 100m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기계를 볼 수 있었으며, 술의 원료가 되는 쌀을 찌는 공정부터 제조가 끝난 술을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출하하기까지 보관하는 장소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술 제조과정 대부분이 기계화 되었지만,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자주와 매실주 등의 라벨은 직접 고안한 디자인에 일본 전통종이인 와시(和紙)로 만들기때문에 종업원이 한장 한장 수작업으로 붙입니다.



완성된 술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늘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은근한 술 향기가 감돕니다.



견학 마지막에는 시음도 가능합니다. 먼저, 대표상품인 준마이 '쇼헤이'를 시음해봅니다. 깔끔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니면서도 과하지 않은 것이, 좋은 물로 만든 술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자주. 양조장 견학 때 수작업으로 라벨을 붙이던 모습을 봤는데 그 푸른색 병에 들어있던 술입니다. 첫맛은 상큼한 유자향이 퍼지고 끝맛은 진한 술향이 감돕니다. 너무 달지도, 너무 강하지 않은 술향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술입니다.

매실주 또한 단맛을 살짝 낮춘 고급스러운 맛. 단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도 이 매실주만큼은 맛있게 마셨습니다!

유서깊은 나라 청주는 물론, 소주와 유자주, 매실주 등 다양한 술을 즐길 수 있는 야기주조에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견학 정보

- 개관시간 : 10시~16시
- 휴관일 : 토·일요일, 공휴일, 하계휴가, 연말연시
- 견학료 : 성인 무료 / 어린이 견학불가
- 전화예약 필요 / 정원 20명까지



양조장 정보

- 소재지 : (630-8301) 나라현 나라시 다카바타케초 915 (奈良県奈良市高畑町 915)
- 영업시간 : 월~일요일 9시~17시

남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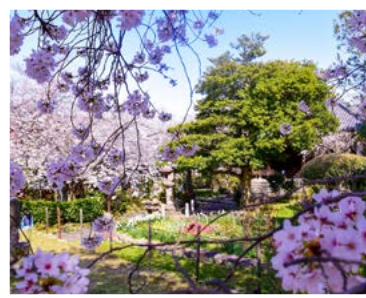


벚꽃과 촬영

나라시는 언제 와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벚꽃이 흠날릴 무렵의 풍경은 더욱 특별합니다. 나라공원만해도 야에자쿠라(八重桜)를 비롯해 코코노에자쿠라(九重桜) 등 1,700그루 이상의 벚나무가 있으며, 벚꽃이 피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나라공원 이외에도 벚꽃놀이와 사진촬영을 즐길 수 있는 장소 3곳을 소개하겠습니다.

간고지 절 탑터 주변

나라마치의 민가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공간에는 1859년 멋진 탑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탑이 있던 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주변은 아름답게 핀 벚꽃과 흠날리며 지는 벚꽃이 역사의 현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라현 호국신사 앞

1942년 설립된 나라현 호국신사는 간고지 절에 비교하면 역사는 짧지만 차분한 분위기는 그에 지지 않습니다. 벚꽃무렵에도 이 공원은 느긋하고 조용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벚꽃의 눈부신 분홍빛과 밝음에 주변 나무의 진한 초록이 비칩니다. 신사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사호단기대학에서 나라마치를 내려다보거나 카페에서 티타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사호가와 강변

사호가와 강 길이 19km의 약 1/4은 천 그루가 넘는 벚꽃나무길입니다. 오후 산책을 하면 꽃잎이 떨어져 조용히 강으로 흘러가는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강변을 따라 조명과 등롱이 켜질 때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오미야(新大宮)역 근처는 가끔 사람이 많을 때도 있지만, 조금만 걷다 보면 혼자만 벚꽃의 세계로 들어온 듯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사호가와 강은 안정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나라·다도 일기일회(一期一会)

쥬코 다회(珠光茶会) QR code

'쥬코 다회' 나라의 다인 무라타 쥬코에의 감사

나라는 다도의 발상지입니다. 1422년에 태어난 나라 출신의 다인 무라타 쥬코는 '와비차'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 후인 1522년, 일본 다도의 대성자인 센노리큐가 태어났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쥬코를 기념하기 위한 '쥬코 다회'가 고도 나라에서 매년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회는 수일간 나라시내 각지에서 열리며, 다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회에 대한 나라 다인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첫 다회부터 자택에서 정기적으로 우라센케 다회를 가르치고 계시는 니시무라 소신 선생님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찾집 코안(喫茶去庵)'의 히라노 소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도쇼다이 절에서 쥬코 다회를 하는 모습 (나라시 관광전략과 제공)

니시무라 선생님 - 전통 다도의 실천자

방문했을 때는 마침 정원에 물뿌리기가 끝나고 문이 살짝 열려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서 들어오세요'라는 뜻으로 다인이 행하는 무언의 인사입니다. 한발짝 안으로 들어서니 정숙한 다도의 세계로 이끌려온 듯 합니다.

다도와 인연이 있는 나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다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니시무라 선생님은 '다도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다실을 만들려면 일본 전통의 건축과 정원, 돌, 수목, 꽃, 도기 등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실은 세속과는 다른, 주인의 생각과 마음이 반영되는 곳입니다. 이날 보았던 우라센케 14대 당주 단단사이 선생(1893-1964)이 쓴 귀중한 족자는 물론, 그에 어울리는 차도구도 마치 미술품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다도의 예법부터 일본전통문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630-8132) 니시무라 선생님 주소 : 나라시 오모리니시초 21-6 (奈良市大森西町21-6)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토요일 자택에서 실시
E-mail : ichiro.tea.master.1224@ezweb.ne.jp



니시무라 선생님과 함께 족자 아치(雅致)를 감상하는 모습



정원에는 커다란 석등이 있습니다.

**나라시에 오시는 분은 부담없이 다도를 체험해 보십시오.
일본문화를 엿볼수 있습니다.**

나라마치 니기와의노이에 - 100년의 오랜 역사와 함께

'쥬코 다회'를 여는 '나라마치 니기와의노이에'에서는 100년 된 전통가옥에서 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찾는 사람의 약 30%가 외국에서 온 손님입니다. (누계 27개국)

3년간 국내외에서 온 방문객 수는 30만명이 넘습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으며, 다도체험은 다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분도 부담없이 즐길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10명 이상일 경우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다도 이외의 전통문화에 대한 행사도 많이 열고 있습니다.

나라마치 니기와의노이에(奈良町にぎわいの家)
(630-8333) 나라시 나카노신야초5 (奈良市中新屋町5)
E-mail:nigiwainoie@gmail.com
영업시간 : 9시~17시 / 휴일 : 매주 수요일



찾집 코안 - 다도 체험

'깍다거(喫茶去)'는 중국 당나라 시대 조주선사가 한 말로, '차 한잔 드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찾집 코안의 주인 히라노씨는 매우 유머있는 분으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라노 선생님은 영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게는 몇 가지 다도체험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급자에게는 우스차(薄茶)를 추천합니다. 코안은 다도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집 코안(喫茶去庵)
(630-8382) 나라시 구노도초6 (奈良市公納堂町 6)

E-mail:kissakoan@tiara.ocn.ne.jp
영업시간 : 10시~18시 / 휴일 : 매주 수요일



'찾집 코안'의 히라노 선생님



'나라마치 니기와의노이에' 종합프로듀서 오노씨



'나라마치 니기와의노이에'에서 열리는 쥬코 다회 (나라시 관광전략과 제공)

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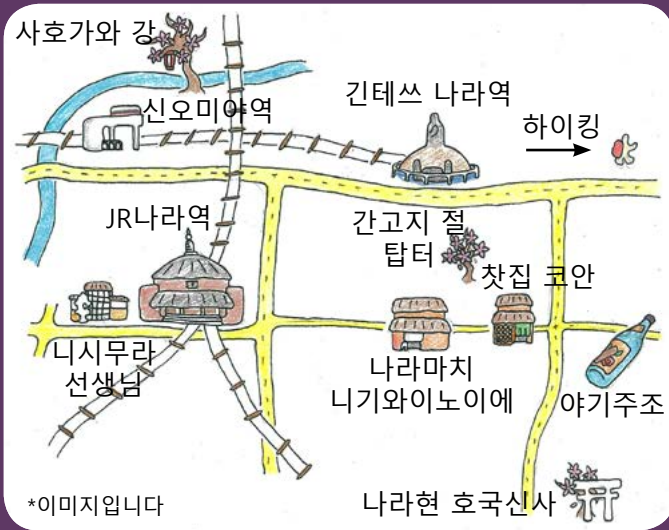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

저희들은 나라현 국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기 위해 매일 국제교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노라” 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현민들 여러분과 해외에서 오신 방문객들께 소개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라현에서 찾은 매력과 흥미로운 곳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쓴 것입니다. 이 정보지를 통해 나라현에 흥미를 갖게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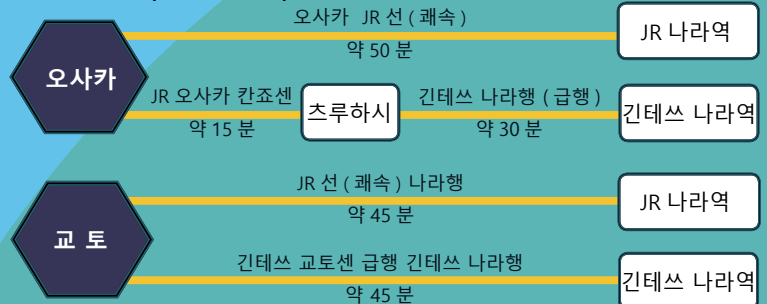


이번에 취재한 장소



오시는 길

전철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오사카에서 : 니시메이한 자동차도 덴리 (天理) IC 에서 일반도로 이용
교토에서 : 게이나라와 자동차도 기즈 (木津) IC 에서 일반도로 이용

편집후기

이번 취재에 협력해주신 야기주조 주식회사, 나라시 관광전략과, 우라센케교육 니시무라 소신 선생님, 나라마치 니기와의노이에, 찾집 코안, 나라시의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나노라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발행 : 2018년 9월

본지에 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30-8501)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 0742-27-8477

FAX : 0742-22-1260